

TV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05:55 관철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05 그대 그 사람(재)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5 굿모닝 A	25 아침이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나만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튜닝생체초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대한민국 행복발전소 55 바른말 고운말	15 사랑의 가족 45 월화 드라마 <태양은 가득하(재)>	00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 12	50 인간극장 스페셜	00 MBC 정오 뉴스 20 우리기락 우리문화	00 SBS 12 뉴스 30 화점기행 <부른 물줄기를 따라가나->
1 40 뉴스 추적자	00 2014 소치 장애인동계올림픽 주요경기		25 통일전망대	30 세계대기행 40 소치2014 장애인올림픽 하이라이트
2 40 직언실질		00 KBS 뉴스타임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5 꾸러기 식사교실 베스트	
3 50 박종진의 뉴스쇼 캐드난마 1~2부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읽어버린 숲 25 두리물살 공개공항 55 TV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 뉴스 10 수빈 스토리 40 헬로킴지 아하! 역사탐험대	00 SBS 뉴스 10 TV속의 움직이는 세상 The 3D
4 00 KBS네트워크 특선 숫자로 읽는 부산 남부소 55 튜닝생체초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30 꼭? 꼭! 키즈쿨	00 꿈의 보석 프리즘스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파라이드 15 KBC저녁 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채널 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시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브리보 멋진 인생	05 토크콘서트 화통(話通)
7 2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 7 30 러브인 아시아	50 일일 드라마 <전성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토크 따따부다 20 일일드라마 <살기운달 하나>
8 3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5 1대100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8 뉴스 55 현장 21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0 콘서트 필	00 월화 드라마 <태양은 가득하(재)>	00 월화특별기획 <기항후>	00 월화드라마 <신의 선물-14일>
11 00 모큐드라마 <싸인>	30 KBS 뉴스 라인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 수첩	15 심장이 뛰다
12 10 웰컴 투 시월드(재)	30 국악의 향기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해외갈작 드라마 아틀란티스-관도라의 상처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 라인
①: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①:10 생활의 발견			①:05 최고의 공부 Who Am I?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청개구리 길들이기)	14:45 미연미아 로봇	19:30 EBS 뉴스
05:40 성공! 인생 후반전	10:10 EBS 문화센터	15:00 초능력 특강대	19:50 극한직업(재)
06:10 명의 3.0(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모피와 친구들	20:40 대유 오늘
07:00 놀이더 구조대, 뽀인(재)	11:20 세계테마기행 (원남 소수민족 기행)(재)	15:30 모피와 친구들 스페셜	20:50 세계테마기행 (모로코)
07:15 오스카의 오아시스(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덩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경제 (진해만)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보(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20 오스카의 오아시스	21:50 EBS 다크프라임 (교육혁명, 15세에 주목하라)
07:45 뽀롱뽀롱 보로로(재)	13:05 지식채널e	16:30 놀이더 구조대, 뽀인	22:45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08:00 덩동명 유치원	13:10 줄거은 수학 EBS MATH	16:45 궁디와 친구들(재)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08:20 두디다콩(재)	13:20 외곽외곽 친구들	17:00 방구대장 뽀롱이(재)	24:05 지식채널e(재)
08:35 방구대장 뽀롱이	13:30 꼬마 기사 마이크	17:15 뽀롱뽀롱 보로로	24:10 세계 명작극장 (다운트 버너)
08:50 궁디와 친구들	13:45 치료와 친구들	17:45 바이오탐험의 파도파오	01:20 시네마 천국
09:05 바이오탐험의 파도파오(재)	14:00 헬로 코코롱	18:00 생방송 특!특! 보너하니	
09:20 부릉! 부릉! 브루미즈(재)	14:15 시계마을 티키톱	19:0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재)	
09:35 뽀롱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EBS플러스1

00:00 올림픽 평가문제집 (수학 I)(재)	12:10 5분 고품 화학 I
00:50 (수학 II)(재)	12:15 수능특강
01:40 올림픽 <영어특혜의 기본 I>	13:05 (수학 II)
02:30 (수학 I)	14:00 <국어 A형>
03:20 뉴타임스 <생활과 윤리>	14:50 <한국사>
04:10 (사회)	15:40 <동아시아사>
05:00 <한국사상>	16:30 (세계사)
05:50 2013 포스 <수학 I B형>	17:20 <세계지리>
06:40 압축타임스 <물리 I>	18:10 <법과 정치>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생활과 윤리>
08:20 올림픽 <영어특혜 기본 I>(재)	19:50 5분 고품 화학 I (재)
09:10 (수학 I)(재)	20:00 수능특강 <국어 A형>(재)
10:00 뉴타임스 <사회>(재)	21:00 <한국사>(재)
10:50 2013 포스 <수학 I B형>(재)	22:00 <동아시아사>(재)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22:50 지식채널e(재)

EBS플러스2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20 만진왕 <수학③-1>
07:30 친절한 수학 익힘책 I ⑥-1	15:50 " <수학④-1>
08:00 행정사 시험대비 강좌	16:20 " <수학⑤-1>
08:30 의학·치의학·약학 적성시험 대비강좌	16:50 " <수학⑥-1>
09:00 줄거은 수학 EBS MATH	17:20 만진왕 평가문제집 <수학집중⑥-1>
09:10 TV 중학 <국어 I ②>	17:50 스물셋(재)
09:50 " <수학 I ①>	18:00 TV 중학 <영어③-1>
10:30 " <역사②>	18:40 " <수학④-1>
11:10 " <국어③④>	19:20 등업신공 <수학③-1>(재)
11:50 " <수학④(상)>	20:00 중학개념 끝장내기 <국어>
12:30 등업신공 <수학④(하)>	20:40 <영어>
13:10 " <수학④(하)>	21:20 " <과학>
13:50 " <과학④(하)>	22:00 " <수학>
14:30 " <수학④(하)>(재)	22:40 TV 중학 <수학④(상)>
15:10 스물셋	23:20 중학e포스 영문법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본격적으로 추진하라. 48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낭패를 보리라. 60년생 전반적인 점점을 해봐야 할 시기이다. 72년생 정면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우회하는 편이 더 낫다. 84년생 새로운 길복에 들어선다. 행운의 숫자 : 79, 84
丑	37년생 예리한 판단이 필요하다. 49년생 안벽을 추구하기란 사실상 힘들 것 같다. 61년생 기본적인 정황을 중시해야 할 판세로다. 73년생 말 못할 갈등에 사로잡힐 수 있다. 85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38, 01
寅	38년생 편히 알면서 도 빠져드는 안타까움이 있다. 50년생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되는 모습이다. 62년생 솔직하게 대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74년생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각오하고 있는 편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58, 31
卯	39년생 되풀이한다고 해서 민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1년생 차분하게 마음먹되 행동은 민첩하게 하자. 63년생 언행을 삼가치 않으면 곤욕스러워진다. 75년생 가까운 이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행운의 숫자 : 32, 65
辰	40년생 가만히만 있으면 될 일을 가지고 손대어서 역효과를 보게 된다. 52년생 여태까지 내버려두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64년생 조건을 완화한다면 효과가 더 크다. 76년생 진실이 예복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1, 45
巳	41년생 가능한 일이나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자. 53년생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될 수도 있느니라. 65년생 마무리가 시원치 않은 모습이다. 77년생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능성이 매우 크다. 행운의 숫자 : 19, 52

午	42년생 정신적 휴식과 기본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54년생 우선순위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해야겠다. 66년생 중용의 도를 지킨다면 만사가 평안하리라. 78년생 포부를 펼쳐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 행운의 숫자 : 26, 13
未	43년생 협력자를 자처하는 이를 주목해 볼 일이다. 55년생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대의를 생각하자. 67년생 입장을 분명히 하고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다. 79년생 본디의 상대대로 돌아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20
申	44년생 길성으로 향하는 인연이 보인다. 56년생 단독으로 처리하는 편이 훨씬 낫다. 68년생 주관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80년생 자제해 들어다보면 헤아려 봐야 할 일이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2, 68
酉	45년생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니 결순하자. 57년생 장고 끝에 얻은 결정이 만사를 주도하리라. 69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느니라. 81년생 한시도 쉬 수 없습니 하루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0, 05
戌	46년생 갈구해 왔던 바가 실현될 것이다. 58년생 굶어서 부스럼 내지 말고 잡자고 하자. 70년생 잠시 장애 요소가 보이지만 무시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 82년생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기회가 열리리라. 행운의 숫자 : 22, 88
亥	47년생 정체한다면 불리해질 수도 있다. 59년생 소신껏 진행하면 상응하는 결과가 주어지리라. 71년생 일시적이거나 위안일 것이다. 83년생 매우 하찮게 여겨 왔던 바가 행운과 연결되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50, 7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

“정도전의 인기는 정치에 대한 기대”



조재현(정도전 역)



유동근(이성계 역)



박병민(이인임 역)

9일 시청률 16.5%...동시간대 1위 정치 개혁 갈망...과거·현실 비스

“늙은 호랑이는 독이 잔뜩 올랐을 것이고 늙은 여우는 방심할 터이니 이제 바람만 불면 비가 내릴 것이다.”(정도전·조재현 분) “어디든 승부가 걸린 곳이라면 상대를 속이는 것은 전술이지 죄악이 아닙니다. 현대에 사람이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요.”(이인임·박병민)

무릎을 치고 다시 굽잡게 하는 이런 절묘한 대사 때문일까. KBS 1TV 대하사극 ‘정도전’의 배우들은 자신이 참여하는 작품에 무한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전날 방송이 기록한 최고 시청률(16.5%)은 그저 ‘담’으로 보였다.

10일 열린 ‘정도전’ 기자간담회에서 출연진은 “연기하는 배우들도 매회 대본을 기다리고, 연기하면서 흥분하는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정도전’은 치밀한 기획과 전장으로 왕조 조선을 설계한 삼봉 정도전과 주변 인물들의 정치 역정을 다룬 대하 사극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민왕이 시해되기 직전인 1374년 가을부터 정도전이 죽음을 맞이하는 1398년까지 24년간의 이야기를 담았다.

타이틀롤을 맡은 조재현은 “드라마를 많이 해왔는데도 이렇게 연습 장소가 기다려지는 것은 처음이다. 선배님들과의 연기가 항상 기다려진다”며 “앞으로 정도전의 활약상이 더욱 구체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용의 눈물”에서 정도전 역할을 맡은 김흥기(1946~2009) 선생님께서 연극 ‘에쿠우스’ 무대를 마치고 쓰러지셨을 때 제 곁에 있었다. 마지막에 곁에 있던 후배가 역할을 더 완성해서 선보이려는 운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고백했다.

“용의 눈물”에서 이방원을 연기했다가 이번에는 이성계로 분하는 유동근도 “매주 대본이 많이 기다려진다. 대본을 굉장히 사랑

한다(웃음)”며 “모든 배우가 더 진실되고 성의를 다해 작업하자고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동혁(이진란 역) 선배가 전쟁 장면을 촬영하며 낙마해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데도 본인이 끝까지 하겠다고 하셨다. 그 모습에 모든 연기자들과 스태프가 힘내 촬영한 기억이 난다”고 촬영 당시를 떠올렸다.

“정치 9단” 이인임 역할로 초반 작품을 이끈 박병민은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었던 역할이었다”며 “사실 이인임은 누가 해도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철학과 식견을 넣어서 캐릭터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도전은 픽션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정통 사극을 지향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정통 사극의 연기자로서 최근 퓨전 사극 일색의 방송 환경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조재현은 “문화 전반에서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정도전이 시청자 기호만 쫓는 드라마였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천편일률적으로 퓨전사극을 제작하는 현실에 지금 정도전의 시청률이 더욱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전했다.

박병민은 “퓨전 사극인 기황후의 시청률과 정도전의 시청률은 서로 다른 것 같다. 시청률은 조금 부족하지만 임팩트나 집중도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자부심을 드러냈다.

최영 장군 역할로 출연 중인 이인임은 “사극은 과거를 현실의 교본으로 삼아 우리를 되돌아보고 역사의 자긍심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사극을 하는 배우들은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연기 철학을 강조했다.

조재현은 “600년 전의 시대 상황과 지금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 국민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점이 유사하다. 그러다 보니 (정도전처럼) 새로운 정치를 여는 누군가 나타나길 기대하는 것 같다”고 작품의 인기 비결을 분석했다. /연합뉴스

‘300:제국의 부활’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

10일 현재 누적관객수 78만명

2위 논스톱·3위 수상한 그녀

할리우드 영화 ‘300’의 속편 ‘300: 제국의 부활’(사진)이 리암 니슨의 ‘논스톱’을 누르고 개봉 첫 주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1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300: 제국의 부활’은 지난 7~9일 사흘 동안 전국 720개관에서 66만 1909명(매출액 점유율 40.7%)의 관객을 모아 1위를 차지했다.

6일 개봉한 이 영화의 누적 관객 수는 78만 2906명이다. 지난주 1위였던 ‘논스톱’은

508개관에서 39만 5833명(22%)을 더해 2위다. 지난달 27일 개봉해 누적 관객수는 146만 4427명이다.

심은경 주연의 ‘수상한 그녀’가 345개관에서 14만 5181명(7.8%)을 더 모아 누적 관객은 842만 7650명이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노에 12년’이 두 계단 올라서 4위다.

316개관에서 10만 8202명을 더해 누적 관객 29만 9554명을 기록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은 5위. 383개관에서 9만 7098명을 더해 누적 관객은 131만 418명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은 421개관을 지켰지만 9만 6000여 명을 더하는데 그쳐 6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은 1019만 4484명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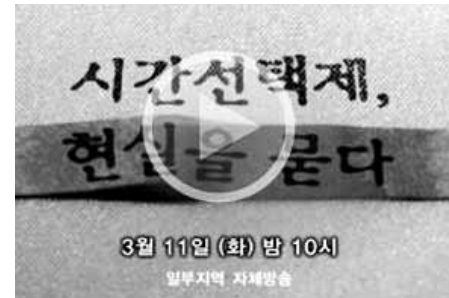
TV 하이라이트

순수함을 간직한 모로코를 만나



세계테마기행(EBS·밤 9시30분)=모로코를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 모로코의 색을 만나. 이슬람의 율법에서 초록색은 ‘천국’을 의미한다. 사막의 민족은 오아시스가 풍부한 낙원을 그리며 초록빛으로 그들의 건물을 치장했다. 200m의 거대한 첨탑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슬람 사원, 하산 2세 모스크 또한 이 천국의 색으로 치장되어 있다. ‘천국’을 ‘신이 내려준 사람’으로 여긴다는 무슬림 가족은 우연히 만난 여행자에게도 모로코 전통 음악을 정성스레 대접하며 환대한다. 또 다른 인연을 찾아서,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모로코 땅의 주인, 베르베르인을 만난다.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날아간다고 믿으며 작은 플래시에도 놀라는 베르베르인이지만, 낯선 이방인에게도 정성을 베풀며 정을 나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격 해부



시사기획 창(KBS1·밤 10시)=“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를 만들겠다.” 지난해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밝힌 야심 찬 포부다. 연초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취업시장이 들쭉날쭉 있다.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 기업들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기존의 시간제와는 다른,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라 강조한다. 고용률 70%의 지름길이자 일·가정 양립의 해법으로 떠오른 ‘시간선택제 일자리’. 이 일자리가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다양한 구직자들에게 꿈의 일자리가 될지, 아니면 비정규직 일자리에 숫자 하나를 더 보태는 결과만 낳을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현실을 전격 해부해 본다.

중국자본 유입된 해운대의 미래는



현장21(SBS·오후 8시55분)=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부산 해운대는 해마다 수백만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한창인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해운대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 휴양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공사 규모는 약 3조 원이며, 이곳엔 레저댄스 호텔이 포함된 101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와 84층 규모의 아파트 두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 대규모 사업의 총 책임은 국내 시공사가 아닌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라는 중국회사가 맡고 있다. 중국자본이 유입되면서 해운대가 소수 부자들을 위한 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해운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